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지상 설교

##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

(요한복음 1장 45 - 51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전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들은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가시밭과 같고, 들쭉날쭉 같아서 말씀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뿌리를 잘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 1.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나다나엘은 우선 인간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그는 매사에 성실함을 보인 사람입니다. 위선이 없고, 속임수도 없고, 단순하면서도 투명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실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흉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쉽게 믿거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든 자신의 마음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를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그 곳으로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진리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면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조상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서 말할 때까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지식을 말함으로 나다나엘로 하여금 편견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오히려 “교회에 와 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다

나다나엘은 비록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그러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양심에 옳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주님은 그가 구원을 받도록 마음을 조성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십니다.

자연인의 눈을 가지고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회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적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도덕적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 3. 예수님이 보신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고 계셨으며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자신을 지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예수님은 못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브니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그 요구에 충분히 응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언제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 4. 나다나엘의 믿음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전지하심을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하고 이해력 있는 성품으로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참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도망을 가다가 벰엘에 이르러 사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환상,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린 하늘과 축복받은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비전입니다. 이것은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예수님만을 본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4년도 서리집사 임명

## 오늘 주일 I, II, III 부 예배시간에

교회는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시간에 2004년도 남  
녀 서리집사를 임명한다. 오늘 임명받는 서리집사는 2004  
년 일년간 교회 각 부서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게 된다. 2004년도 서리집사의 명단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  
일 년 동안 교회 살림의 중심이 될 서리집사들은 먼저  
기도와 감사함으로 임명받아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개인 신  
앙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 제36회 메시아 합동 연주회 티켓 발매

## 12월 16일(화) 올림픽 홀에서 열려

오는 12월 16일(화)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제36회 메  
시아 합동 연주회 티켓 발매를 시작한다. 티켓은 S석과 A  
석으로 구분되며 S석은 20,000 원 A석은 15,000원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우리교회가 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2003년 연  
말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도의 장으로 활  
용하면 더욱 좋은 전도의 효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 티켓이  
필요한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2003년 하반기 성경대학 수료식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지난 11월 중반에 10주간의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2003년 하반기 성경대학의 수료식이 오늘 찬양예배시간  
에 있다. 학사일정을 마쳤다. 내년 3월 다시 개강하는 2004년 전반기 성경대학도 더  
욱 알차고 은혜로운 강의로 진행되고 더욱 많은 성도들의  
열의 속에 개강되도록 기도한다. 오늘 수료하는 성경대학 수료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수료자 명단>

#### (요리문답반)

김광룡, 박길수, 이시환, 배기돈, 김길자, 박영숙,  
문옥희, 오가연, 남정열, 김수경, 이봉선, 김상태,  
김숙자, 이용성, 김수옥, 이윤영, 이윤진, 탁경준,  
우상태, 이승래, 유판모, 이진구, 이수련, 박현영,  
차도훈(25명)

#### (누가복음반)

고금란, 박 숙, 김연화, 노명옥, 박분옥, 박현영,  
박형숙, 배은주, 서경애, 심명숙, 안명덕, 유숙인,  
이경구, 이덕희, 이비숙, 이선희, 이영자, 이은희,  
이인숙, 이정연, 임송자, 전보람, 정연택, 조정옥,  
주화인, 채경희, 천정화, 황역구(28명)

#### (히브리서반)

최홍렬, 김찬진, 류승혜, 서경애, 오충례, 이덕희,  
이수자, 이인숙, 이종창, 임옥균, 정병무, 조순엽,  
조정옥, 최향봉, 최형열 (15명)

#### (느헤미야반)

오승민, 이영자, 나옥녀, 허 숙, 서경애, 김연화,  
주경자, 조정옥, 이정연, 김순인, 유숙인, 박 숙,  
한광아(13명)

#### (다니엘반)

이덕희, 최향봉, 오충례, 이종창, 김명옥, 이명아,  
이현주, 전숙향, 정병무, 박경희, 유영준, 이경구,  
한광마, 서경애, 김숙자, 김상태, 박영희, 정옥현,  
김금준, 김유경, 김영주, 이혜순, 이승희, 윤숙희,  
유을상, 유명희, 홍순석, 이순래, 원용범, 임인숙  
(30명)

#### (교사양성반)

김정호, 경은숙, 김수경, 박민숙, 양인수, 오영숙,  
은기장, 이민광, 김성수, 여동옥, 최광성, 남현주,  
배기훈, 안홍희, 이갑연, 이정연, 이현주, 임정인,  
정미연, 최정운, 전화진, 강혜주, 구진경, 김은혜,  
남태순, 박수진, 박준희, 유수진, 이은아, 이한나,  
임영여, 장윤정, 최정희, 하혜심, 함정희 (35명)

#### (교구일꾼양성반)

서경애, 유숙인, 이난화, 서중숙, 최미경, 이미숙,  
김연화, 김은순, 최중희, 임인선(10명)

#### (주부대학)

임송자, 박상희  
(2명-4학기 수료-)

# 교회 지하주차장 야간 폐쇄

교회는 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동절기에 접어  
들면서 교회 야간 주차장을 유지하고 화재와  
도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밤 10  
시부터 명일 새벽4시까지 지하 주차장 셔터를 내  
리기로 하였다.

교회에서 각종 모임 등으로 늦게 귀가하게 되  
는 성도들은 교회 1층 마당에 주차하기 바라며 성  
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찬양대 헌신 예배

오늘 찬양예배는 찬양대 헌신예배로 드린다.  
모든 찬양대원들은 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예배를 준비하기 바라  
다.

각 찬양대 대장과 부대장 지휘자는 오후 4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 준비모임을 갖는다.

# 추수감사절 미군 초청잔치

-Happy Thanksgiving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지난 27일(목) 우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  
이 하여 주한 미군 장병과 가족을 초청하여 분당  
에서 김광신 장로의 인사 및 교회소개 후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듣고 8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  
고 식사를 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미군을 대표하여 감사인사하는 본 목사(미8군 군목)



▲ 만나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다

### 금주의 성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  
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다. (롬 11:33)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고등부 친구 초청잔치를 마치고-

# 친구 초청잔치는 계속됩니다

이민광 성도(고등부 교사)



지난주일 고등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고등부 친구 초청잔치'입니다.

뜨겁게 부흥하는 서울교회 고등부를 위하여 오정식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고 힘써 전도하여 그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17살부터 19살까지의 고등부 학생을 의미하는 '환영해요 1719' 장식이 많은 풍선들과 새 친구를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부 형 누나들의 힘찬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잔치는 고등부 김지영 자매의 바이올린 연주와 손영호 선생님의 트럼펫 연주로 이어졌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작은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등부의 빈자리는 계속 채워지고 있었고 새로운 친구의 얼굴이 보일 때 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순서는 계속해서 학생회 임원들의 특송으로 이어졌고 새 친구들과 오늘같이 기쁜 날을 감사하려는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답을 허무는 내용의 성곡은 가

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를 소개하는 시간, 준비한 고등부 소개 영상을 통해 친근한 목사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고등부의 모습이 새 친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새 친구들과 더 많은 친구들이 계속 채워지길 기도했습니다.

고등부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아쉽게도 목표에는 미달이 된 채 친구 초청잔치를 끝냈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등부의 친구 초청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전도하지 못한 주변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학교 앞 전도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 601호에서 있는 고등부 모임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부흥하는 고등부 친구잔치에 더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파이프오르간 봉헌예배를 함께 드리고

# 2003 사명자대회 50일 연속기도를 마치며

서경애 성도(1교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일 동안 가장 많이 기도드린 제목은 7대 공동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 특히 교회 헌당과 담임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역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쟁쟁하며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어지러운 이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국경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세계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면 1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드리는 시간은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아들과 자부와 딸과 제 남편 모두가 서울교회에 등록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 얼마나 기쁘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큰 은혜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명자대회 50일 연속기도를 드리며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의 세계와 음악이 만난 감동의 순간

신동숙 권사(성은교회 오케스트라 단장)

대학서적 세종 문화 회관에서 열린 오르간 연주회를 감상했던 감동의 순간이 아직도 내 귓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결혼 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세계와 음악의 세계가 만나는 예술의 공간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해 오길 어언 20년 이상 흘렸을까?

초겨울 문턱에선 토요일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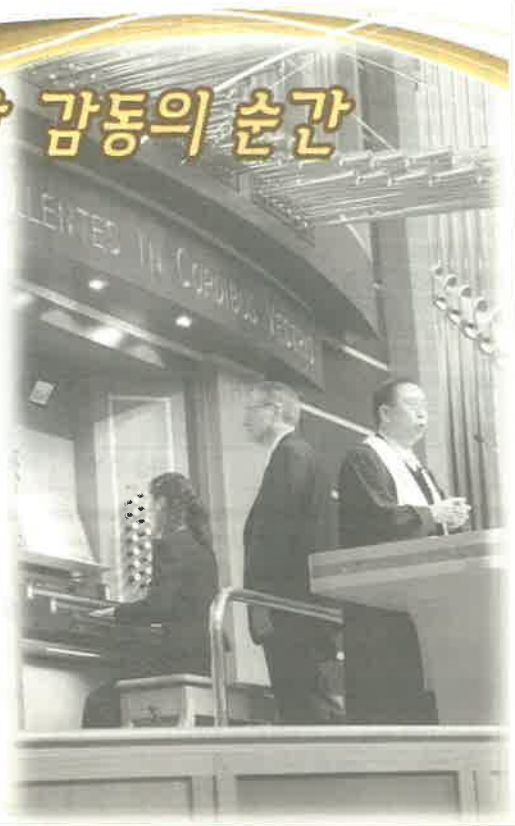
오르간을 제작하여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만 열면 서울교회를 자랑하면서 조카는 이번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에 초대하였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니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장엄했으며 크고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황홀 그 자체였다. 손끝마다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갈고 닦은 피맺힌 노력의 열매는 보고 듣는 모든 이의 가슴을 감격의

로 가득 채웠다

여러 곡 중 특히 1937년 작곡된 Dupre의 두개 테마 위의 변주곡은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함과, 또한 피아노의 섬세함을 최대한 발휘한 동질감 속에서 또 다른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장중하고도 매혹적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이색적인 광경이었다. 하늘과 땅의 속삭임이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깊은 대화 같기도 한 경이로움마저 느껴지는 곡이었다. 또한 이들이 스승과 제자라니 그 모습만으로도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한시간 반 남짓한 연주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로 승화되어 온 성도들을 축복하는 귀하고도 귀한 시간이었다. 이같이 교회 음악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갖춘 만큼 모든 면에서도 성숙한 서울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 속에 우뚝 솟은 서울교회를 본 것 같아 이웃 교회 성도로서 큰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04년 농어촌 100교회결연연황

1	계곡 제일교회	김대영(전)	홍순복
2	곤전리교회	박동익(목)	장명순B
3	국계교회	이만수(목)	최종시, 최길옥
4	굴암교회	최희익(전)	김정애
5	금릉교회	권순택(전)	김태정, 장희옥
6	금명교회	정두진(전)	김태정, 장희옥
7	금오교회	진기환(목)	곽숙
8	내도향양교회	정희현(전)	김은석
9	논산 장로교회	송희순(전)	김영빈, 배병이
10	덕계교회	정승철(전)	최양진
11	덕곡교회	박종구(목)	김비영
12	동화교회	전진희(목)	박정선, 김달순
13	둔방교회	류인환(목)	나미숙
14	마장교회	주주신(전)	최효영, 천정화
15	명계교회	박정용(목)	이갈진
16	모실교회	신석기(목)	김사부일, 정정열
17	박산교회	이정삼(목)	강승용, 서정애
18	반석교회	박관영(목)	김광신, 이인선
19	반석교회	정갑철(전)	손명근, 정수자
20	방리교회	최규복(목)	최규초, 노순래
21	방곡교회	송원영(목)	신천주
22	백마교회	김우봉(전)	이윤영
23	보길교회	이정기(전)	황선희
24	북천교회	서연중(목)	이승민
25	북주교회	서원수(목)	최난수
26	부남 영성교회	신택대(목)	이영주, 최양혜
27	서동로교회	김태원(목)	이동만, 이은자
28	신동교회	최정수(목)	서한석
29	삼진교회	계용권(전)	김종자
30	상리교회	전광호(전)	홍승전, 황정임
31	생수교회	황보영(목)	노병호, 홍지나
32	서평교회	이승우(전)	이영주, 최양혜
33	서리교회	유인영(목)	송재현, 신승희
34	성광교회	장내중(목)	박정수, 김경옥
35	세간교회	남정우(목)	김재중, 김유경
36	소량도교회	박인재(전)	이성우
37	송내교회	이승민(전)	원용범, 김경희
38	송천교회	김인철(전)	원용범, 김경희
39	사산교회	김정수(목)	이상현
40	신덕교회	정영석(목)	이강민, 허승
41	신성교회	오준석(전)	전기설, 원영애
42	신암교회	오진드(목)	전기설, 원영애
43	신촌교회	이정규(목)	김복녀
44	인제 제일교회	허진(목)	이성근, 김경임
45	인곡교회	서영수(목)	오정수, 이영희
46	양정교회	이순화(전)	박순옥
47	여천동교회	정광기(목)	이남성, 최영림
48	연리교회	정장연(목)	조원장, 오성애
49	연천한시향교회	임재용(전)	임승수
50	영광교회	이양재(전)	이양철, 김희향, 이상화
51	윤당제일교회	정영섭(전)	신승석
52	윤암제일교회	김상중(목)	김재길, 장명순A
53	율곡교회	윤성덕(전)	임광식, 노영숙
54	율성교회	김윤진(목)	임광식, 노영숙
55	월전교회	문경두(목)	이영옥, 노영숙
56	월평성광교회	강용택(전)	노분환, 장정화
57	주왕산교회	이희구(전)	송용준, 김명화
58	향도교회	이춘자(전)	박두호, 한성옥
59	하늘교회	권영복(전)	조명준
60	향안교회	박영자(전)	고아라, 고요한
61	송천복지교회	송인기(목)	조철기, 김영란
62	장정동주교회	김정철(목)	전은
63	고향교회	김권환(전)	하인선, 남래순
64	모산교회	유인영(목)	최규초, 노순래
65	향양교회	한덕순(전)	차도훈, 남래영
66	묘두교회		정두균, 이영희
67	점빛교회	김상수(목)	최애순

다음 주 계속

민족복음화의 기둥 - 농어촌 100교회 운동

이규정 목사

매년 이맘 때쯤이면 교회에서 발송한 자매결연신청서 외에 수많은 신청서, 요청서, 탄원서, 추천서 등이 전도위원회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상황입니다. 교인이 55세, 76세 두 명을 마지막 보루로 생활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목회하시는 산골 목회자의 사연, 중고대학생들이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애원하는 외딴 섬의 목회자들,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했으나 건축비 부족으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의 사연 등등 여러 안타까운 내용들과,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힘을 얻고, 금년에도 4명이 새로이 등록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은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와 교회내의 개인 및 기관 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매일 일정액을 지원함으로 농어촌 교회를 격려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족복음화 사역의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원자가 물질 후원뿐 아니라 기도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기도후원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합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후원자가 대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 1회 이상의 방문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농어촌 100교회 운동은 산간도서벽지의 교회들이 현지에 맞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위원회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에 전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구좌는 10만원(1/2구좌도 가능)이며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 23일(일) 한티공원에서 열린 초등부의 '달란트 시장'은 조그마한 주먹에 달란트주머니를 소중히 움켜쥔 200여 아이들의 즐거움으로 환성이었다.

달란트 시장, 음식코너, 중고시장, 경품코너로 꾸며진 한티공원은 목사님의 테이프커팅이 끝나자마자 환호성과 함께 진열대로 달려간 아이들로 금세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부 학생들은 물론 타 부서 학생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함께 축제를 즐겼다.

어떤 것을 살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달란트가 모자라 깎아 달라며 애교부리는 아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어묵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아이, 경품에서 당첨된 선물을 한손에 들고 기뻐하는 아이, 아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달란트를 세어보며 들뜬 기색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중황무진 다니며 한티공원을 가득 메웠다. 성당을 다니다 왔다는 한 아이는 다른 달란트 시장과는 달리 교회 밖에서 하나하나 더 재밌고 화려하다면서 즐거워했고, 유아부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온 한수경양은 손이 빨개지도록 추운 날씨였던만 재미에 푹 빠져 추운지조차 몰랐으면서 웃었다.

일주일 전부터 달란트 시장을 위해 6시간이나 걸려 문구도매상까지 갔다 오면서도 함께 준비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며 즐거워하던 백영자 선생님은 이날 공원을 가득 메운 아이들에게서 초등부교사를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특히 풍족하게 자라 씩씩이가 해를 줄 알았던 아이들이 의외로 꼼꼼하게 생각하고 아끼면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천국을 향해 쫓라'라는 닥트키즈게임을 진행한 배석훈 선생님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열심히 대답하는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이 좋았다면서 은혜롭게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먹을 것도, 즐거움도 풍족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 모두 흠뻑뻑했던 2003년 달란트 시장. 내년에도 더욱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달란트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고은실 · 오주명(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2월2일(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한정연) 제21회기 상임위원회 전체모임, 4일(목) 연북회 조찬 기도회, 한기기도동자회를 갖는다.

■ 금주의 식사: 김성모 집사 · 이경혜 집사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금 오후 7시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C3 TV - <a href="http://c3tv.co.kr">http://c3tv.co.kr</a> ■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임명된 제직들(서리집사)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연말에 있을 메시아 공연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